



순창고 임병진 전국역도대회 81kg급 '3관왕'

임병진 학생(순창고 3년)이 제99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중등부 81kg급 3관왕에 올랐다.

22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제99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및 제35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순창고등학교 임병진 학생이 81kg급에서 인상 138kg, 유흥 166kg 들어올린 뒤 합계 303kg을 기록하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이 기록은 2위와 무려 16kg 차로 월등한 경기력을 입증했다.

윤상운 감독이 이끄는 순창고 역도부는 2021년 5월 9일 전남 강진에서 개최된 제80회 문곡서상전배 역도경기대회에서도 임병진이 81kg급에서 3관왕을 2학년인 정해빈 학생 역시 102kg급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정은성 기자



우아2동 이백장돈까스, 매달 10가구에 돈가스 기부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에 위치한 이백장돈까스(대표 정지민)는 22일 우아2동 주민센터(동장 장덕현)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 10세대에게 매달 돈가스를 기부하는 약속을 했다.

이날 기부를 시작한 이백장돈까스는 코로나9로 요식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10세대에 돈가스 도시락 메뉴를 만들어 전달하기로 해 주위를 훤훔하게 했다.

정지민 대표는 "요식업도 힘들지만 경제가 어려워져서 주위에 식사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돈가스가 지쳐 있는 관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드론축구선수단 '후원'

전북은행 · 유니온시티, 2025년 드론축구월드컵 앞두고 각각 1000원씩 후원

전주지역 기업들이 전국 최초로 충북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전주시 드론축구 선수단을 응원하고 나섰다.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과 (주)유니온시티(대표 임동우, 유혜숙)는 22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전주시 드론축구선수단(단장 이해경)에 각각 1000만 원씩을 후원했다.

두 기업은 오는 2025년 제1회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전주시 드론축구선수단이 더욱 강한 성장을 이를 수 있는 기반을 뒀을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창단한 전주시 드론축구선수단은 현재 6명의 선수들로 구성돼 전국 300개 팀에서 상위권의 실력을 뽐내며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한편 전북은행은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다문화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우수아이 벌금 및 육성, 어르신 무료급식, 재난·재해 봉사활동 등을 펼쳐왔다. 또 덕진구 팔복동 소재 (주)유니온시티는 ▲수혜민·독거노인 지원 ▲시내버스 마스크지원 캠페인 ▲전주 연탄은행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의 나눔 활동에 힘써 왔다. /김윤상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건강한 체육수업' 운영

군산교육지원청은 능동적인 신체활동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2021 함께 극복하자 코로나19 건강한 체육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종목은 복싱과 축구로 각 종목별 협회와 협업을 통해 교육이 이뤄졌다.

먼저 '찾아가는 복싱교실'은 6월 한 달 간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3개교 등 총 15개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급당 2명의 전문지도자가 배치돼 기술 및 자세 트레이닝, 복싱 연계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기능 향상과 면역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축구교실'은 오는 7월 8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에서 진행된다.

학급당 2명의 축구교실을 진행하면서 스킬 트레이닝, 축구연계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이끌고 있다.

한편 군산교육지원청은 7월 이후에는 육상종목으로까지 확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키즈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일관 교육장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이에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로 면역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찾아가는 체육수업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참여학교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는 종목을 추가해 건강한 신체활동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효과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루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산동면, 사랑의 농산물 나눔 펼쳐

남원시 산동면(면장 고홍석)은 '사랑의 농산물 함께 나눔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햇감자 20kg 35여상자를 관내 저소득 주민과 경로당 20개소에 21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매년 관내 유류농지 500㎡(태평리 178-1)를 활용, 농민상담소를 비롯한 관내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농산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인성·창의교육지원위원회에 송영주 교장

전주시는 22일 키타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주시 인성·창의교육지원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어 송영주 군산동고등학교 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직에 따라 운영되는 전주시 인성·창의교육지원위원회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균형으로 바른지향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구성됐다.

이날 정례회에서 시는 교육계 전문가들로 선정된 신규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전주시 야호학교 등 교육정책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

예수대학교 이사장에 김철승 예수병원장 선임



예수대학교 이사장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김철승 예수병원장을 학교법인 예수대학교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병원장은 "예수대학교는 지난 71년간 우수한 간호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을 양성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에 왔다.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수대학교가 미래 의료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7대 예수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철승 예수병원장은 전북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예수병원 유방·갑상선, 혈관이식 외과 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예수병원장을 맡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시니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농신보 남원원역센터(센터장 남용수), 농협지역판단 전북지사(지사장 김성수) 임직원 10여명은 22일 인월면 건지리 포도농가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북농협 시니지협의회가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로 촉발된 농촌 인력부족 상황을 개선코자 실시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포도 봉지 써우기 및 내·외부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으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번기를 앞둔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 여름에도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부안군 해수욕장 일제 개장

7월 10일 ~ 8월 16일 (38일간)

변산해수욕장 / 격포해수욕장 / 상록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 고사포해수욕장 / 위도해수욕장

